

종합상사, 관세 등 대외변수 진담 사업영역·진출국가 다변화 나서

에너지·인프라 등 실물 투자 확대
해외시장 개척… 수익개선 도모
트레이딩, 고환율 반사이익 기대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신사업 확장을 꾀하던 종합상사들이 미국발 고율 관세 와 경기위축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직면하면서 고전하고 있다. 다만 전통적인 트레이딩 부문은 고환율 기조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신사업 역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에너지 등 실물 투자 확대가 이어지며 양방향에서 돌고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종합상사들은 대외시장 변수 속에서도 해외 시장 개척을 지속하며 수익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상사업계의 1분기 실적이 비교적 견조할 것이라는 할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외환경 변화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발전사업 전력 판매 단가는 지난 2022년 224원·kWh에서 지난해 160·kWh로 하락했다. 2년 새 약 28.6%가 낮아진 수치

다. 전력 시장 가격 하락과 함께 신재생 수요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도 화학, 철강, 에너지, 소재 등을 아우르는 상사부문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지난 2022년 46.8%였으나 지난해에는 30.87%로 줄었다. 철강과 화학 제품의 글로벌 시장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무역·트레이딩 부문도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 여파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높은 관세로 제품 가격이 치솟으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각 사는 사업 영역과 진출 국가를 다변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액화천연가스(LNG) 밸류체인 전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회사는 미얀마 LNG 가스전 채굴 사업을 비롯해 LNG 벙커링 및 LNG 선박 시운전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오는 5월 중에는 HD현대삼호에서 건조한 174K CBM(큐빅미터)급 운송선

을 인도반아 트레이딩용 LNG조달에 활용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트레이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삼성 C&T 재생에너지 유럽 법인’을 설립했다. 또 태양광, 풍력 등 유럽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환율 기조가 트레이딩 부문의 수익성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 수익을 통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사업계는 단순 상품 중개에서 벗어나 에너지나 인프라 등 실물 기반의 사업 개발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우량 프로젝트 발굴과 현지 사업 역량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스마트폰 왕좌 수성

출하량 기준 글로벌 1위 기록
판매량은 애플이 근소하게 앞서

삼성전자가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1위를 기록하며 스마트폰 ‘왕좌’를 지켰다. 반면 판매량 기준에서는 애플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양사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7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점유율 2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애플이 19%, 중국의 샤오미(14%), 오포(8%), 비보(8%) 순이었다. 출하량은 제조사가 유통망에 공급한 물량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제조사 실적을 평가할 때 활용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와 신형 A 시리즈 등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분기 1위 자리를 수성했다. 반면 애플은 이례적으로 아이폰 신 모델을 1분기에 출시하며 대응했지만, 출하량에서 삼성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 14일 ‘올해 1분기 판매량 점유율’ 자료를 내고 1분기 애플의 판매량이 19%로 삼성전자의 판매량(18%)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판매량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치를 의미해 추정 방식에 따라 기관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삼성스토어 강남점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방문객들이 갤럭시 S25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다른 시장조사업체인 IDC와 카날리스토도 각각 삼성의 점유율을 19.9%, 20%로 집계하며 출하량 기준 1위를 확인했다.

카운터포인트 박진석(Jene Park) 책임 연구원은 제조업체별 실적에 대해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와 새로운 A 시리즈 출시로 출하량이 증가하며 2025년 1분기 다시 1위를 차지했다”며 “애플이 1분기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 16e는 일본 등 일부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통상 1분기는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를 출시하는 시기로, 신제품이 없는 애플을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는 시기다.

/이혜민 기자 hyem@

현대차그룹,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 수상

2025 월드카 어워즈

EV3·캐스퍼 일렉트릭 ‘2관왕’
전동화 기술력, 첨단사양 등 호평

현대자동차그룹이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석권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16일(현지시간) 열린 ‘2025 월드카 어워즈(2025 World Car Awards)’에서 6개 부문 중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아 EV3가 ‘세계 올해의 자동차(WCOTY)’에 선정됐으며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티)은 ‘세계 올해의 전기차’로 뽑혔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텔루라이드의 수상을 시작으로 최근 6년간 다섯 차례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됐다.

특히 2022년 아이오닉 5, 2023년 아이오닉 6, 2024년 EV9에 이어 올해 EV3까지 전용 전기차가 4년 연속 수상에



월드카 어워즈 싯다르트 비나야크 파판카르 의장(왼쪽부터), 스티븐 센터 기아 미국법인 최고 운영책임자(COO), 월드카 어워즈 엔스 마이너스 심사위원이 세계 올해의 차 (EV3) 수상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동화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기아 EV3는 총 52개 차종이 경쟁한 ‘세계 올해의 자동차’ 부문에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BMW X3 등과 치열한 접전 끝에 최고의 차량으로 선정됐다.

EV3는 기아의 전기차 대중화 전략

을 상징하는 전용 콤팩트 SUV로, 우수한 전동화 기술과 첨단 사양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호평받았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프리미엄 전기차 포르세 마칸 일렉트릭을 제치고 ‘세계 올해의 전기차’ 부문에서 수상하며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 석권

점유율 21%… OLED 라인업 확대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세계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모니터 부문에서도 2년 연속 1위에 오르며 고성능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17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주사율 144헤르츠(Hz) 이상) 시장에서 금액 기준 21.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했다. 2019년 처음 1위에 오른 이후 6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27.5%의 점유율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OLED 모니터 시장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4.6%의 점유율로 OLED 모니터 시장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지난해 OLED 모니터 전체 출하량은 124만 대로, 2022년과 비교해 약 16배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27형과 32형 신제품을 중심으로 OLED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hyem@

한국타이어, 루시드 모터스에 OE 공급

(신차용 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17일 미국 전기차 브랜드 루시드 모터스의 대형 전기 SUV ‘루시드 그래비티’ 북미 판매 차량에 전기차 전용 사계절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SUV’를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아이온 에보 AS SUV가 장착되는 루시드 그래비티는 최근 미국에서 출시된 순수 전기 그랜드 투어링(GT) 모델이다. 최대 828마력의 높은 출력을 기반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5초만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루시드 모터스와의 협력을 통해 고성능 대형 전기 SUV에 최

적화된 성능을 발휘하는 전용 타이어를 개발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의 특화 기술로 저소음, 전비 효율, 그립력, 낮은 회전 저항, 마일리지 등의 성능을 구현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본사 ‘테크노플렉스’와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을 필두로 한 글로벌 5개 R&D 센터,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 등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선제적 기술 확보에 매진하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지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티웨이항공, 유럽 운항 심사·점검 실시

프랑크푸르트 공항서 운영실태 확인

티웨이항공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여객 및 화물 운송 현황 전반에 대한 품질 심사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 심사는 티웨이항공의 장거리 유럽 노선 중 하나인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여객 및 화물 운송 과정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장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여객 운송 품질 점검은 공항 업무 수행 인력의 적정성과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뉴얼

과 업무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탑승 수속 과정에서 위험물 규정, 비상구열 제한 승객 등 관련 규정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화물 운송 품질 점검에서는 조업사 시설과 장비의 적절한 유지·관리 여부와 화물보관 시설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를 살폈고, 관련 직무 교육과 화물 처리 절차가 국제 규정과 항공사 자체 규정에 부합하는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물품 반입 관련 보안 검색과 사전 차단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